

보성햇차 기획상품 라이브커머스서 완판 '인기'

(실시간 소통판매)

이틀간 행사서 5200만원 판매고
제다시연 라이브방송 5000명 시청
내달 22일 녹차·농특산물 합인전

보성햇차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에서 선보인 기획상품이 완판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실시한 라이브 커머스 행사에서 준비한 기획상품을 모두 판매해 52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완판된 기획상품은 지난해 대한민국 우리차 품평대회와 세계 차 품평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몽중산다원의 '차중의 차', 원당제다원의 '서리꽃이 핀 차', 청우다원의 '청우명가'이다. 기획상품은 이 달 10일 올라온 첫차를 수제방식으로 만든 햇차로 차 전문가와 소비자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보성군은 올해 열리는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이버 라이브쇼핑 등을 활용해 온라인 합인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대안다원 제2다원에서 열렸으며, 녹차 주산지인 보성군과 하동군의 대표 농가가 직접 참여해 차의 효능, 차를 맛있게 즐기는 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새벽에 탄 찻잎으로 차 명인이 직접 차를 만들어보는 제다시연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아 이틀간 5000여명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했다. 보성군은 다음달 22일에도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자체 플랫폼인 보성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 보성녹차와 지역 농·특산물을 대폭 할인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보성 라이브커머스(www.bslishop.kr)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오후 3~5시)에 농가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판매하며 구매는 일요일 저녁까지 가능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자체 최초로 만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었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가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행사장을 찾아 제다시연을 하고 있다.

다며 "지속해서 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지방 세정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등 8000여만원 수상

고흥군이 지방 세정 발전과 세수 확충을 위해 실시한 2021년 지방 세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7500만 원과 포상금 700만원을 받는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방 세정 평가는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 세정 운영 등 3개 분야에서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고흥군은 세정운영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흥군은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및 야간 세무 행정실 운영과 부동산 셀프등기 QR코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외수입 자동이체 서비스 개시 등 신규시책을 마련해 군민 편의를 돕고 있다. 또 세원발굴 및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대책 등으로 자주 재원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다한 군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투기 논란' 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반대범추위 출범

감사원 감사 청구·청와대 앞 1인 시위 예고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추진위원회' (이하 범추위)를 결성하고 "미래에셋은 경도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27일 촉구했다. 범추위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출범식을 열어 "미래에셋은 약속했던 관광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수익성

이 높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미래에셋 사업안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범추위는 이어 "여수시와 전남도는 미래에셋의 자회사인 양 행동하지 말고 미래에셋이 원래의 취지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

원,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은 1조5000억원을 들여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미래에셋은 1단계 사업으로 생활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 건립에 나섰다. 숙박시설은 6만5000㎡ 부지에 사업비 7500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3층, 지상 4~29층 규모의 11개 동(1184실)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여수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최근 건축경관 심의위원회를 열어 숙박시설이 국동항에서 바라보는 경도의 경관을 해칠 수 있어 건축물의 규모와 입면의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검토 의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블록체인 기술 기반 카드형 상품권 새로 도입



구례군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카드형 상품권을 새로 도입한다. 27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남 김순호 군수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카드형 지역상품권인 '구례사랑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사인)을 체결했다. 구례사랑카드 서비스는 5월 7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 10% 할인은 4월말로 종료되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출시 기념으로 10% 할인 판매 행사를 5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종이형 상품권의 문제점인 훼손과 분실, 부정유통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다. 구례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chak)을 통해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또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본점 및 지점, 구례축협에서도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할 수 있다. 구매는 개인 카드형과 종이형을 포함해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구례사랑카드 가맹점은 앱(chak)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지난 24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순천권역 발대식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정원분야 취·창업 지원 '정원드림 프로젝트' 발대식

순천시가 정원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의 막을 올렸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 순천권역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1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 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관개선에 기여하는 현장밀착형 교육

프로젝트로서 호남권역에서는 순천시가 선정됐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참가팀과 멘토 작가들은 현장조사와 주민면담을 통해 부지에 적합한 구상과 디자인 작업을 하며, 오는 9월까지 순천문화건강센터, 동천면, 순천만습지 소리체험관 등 총 5곳에 작품을 조성하고 가꾸어갈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LG화학 여수공장 노사가 지난 26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낼 희망박스를 포장하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제공)

LG화학 여수공장,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꿈을 품다' 전달

LG화학 여수공장 노사는 지난 26일 여성청소년 500명이 쓸 위생용품을 담은 '꿈을 품다' 희망박스를 제작해 전달했다.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이날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13세부터 만 19세까지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36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상자에 담아 제공했다. 여수공장 노사는 이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사랑의

한털 운동, 임직원 만원의 나눔 모금, 농어촌 상생 발전을 위한 농촌 사랑 상품권 복지시설 전달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해 왔다. 한편 LG화학 여수공장 사회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어려움과 희망 사정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니데이'와 저소득 청소년들의 치과 진료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2020년 신간!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지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인기리 판매중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제5쇄 판매중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기를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최신간 양장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